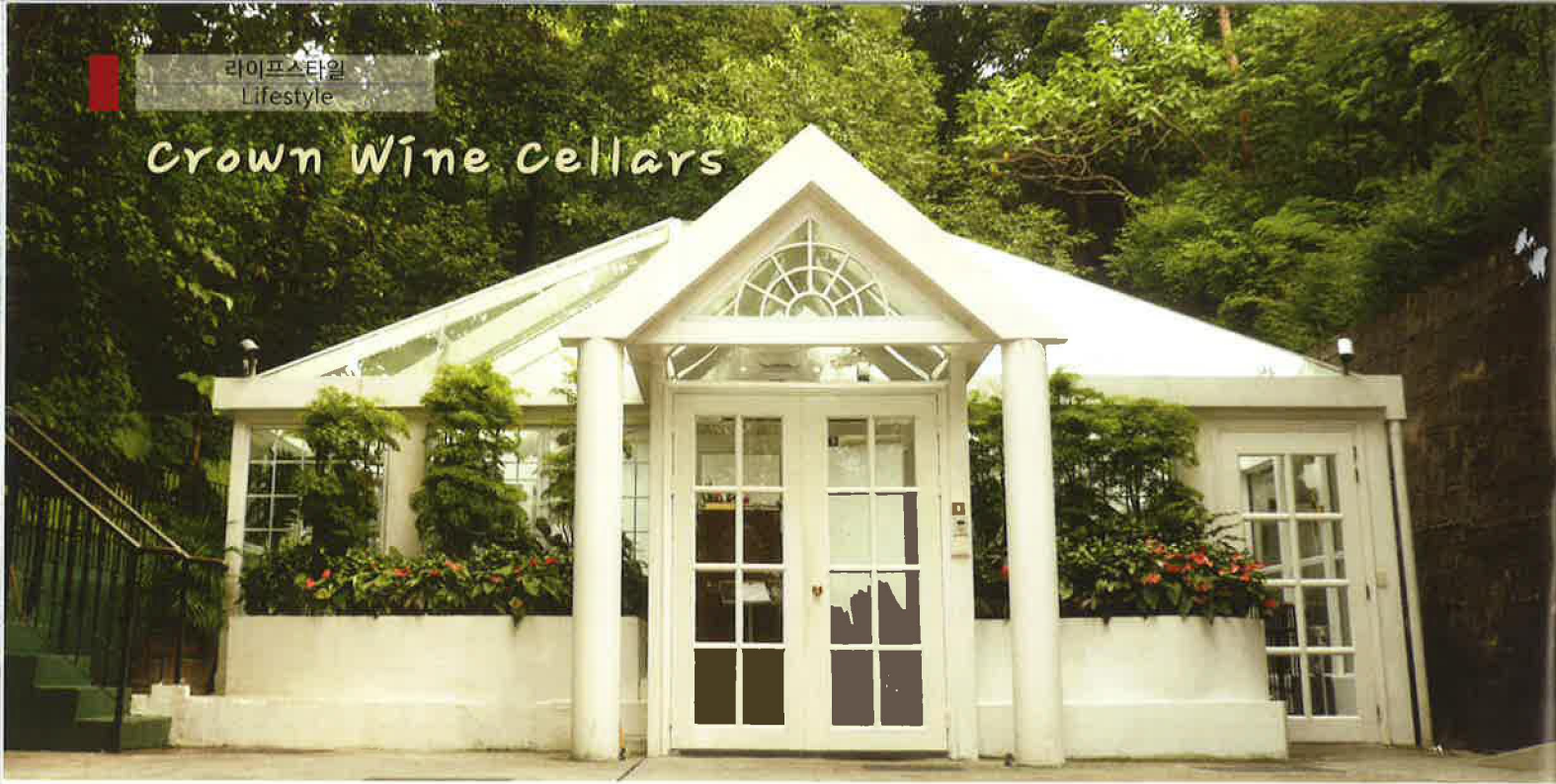


Crown Wine Cellars



Crown Wine Cellars는 2002년에 Crown Worldwide Group의 회장인 짐 톰슨과 전 직업 외교관이었던 그레고리 뎀에 의해 시작되었다. 과거에 작은 홍콩이라고 불렸던 크라운 와인 지하 저장고는 본래 영국 군사기지였다. 하지만 짐과 그레고리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군사기지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아시아 사람들의 와인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지하 저장고는 최초로 유럽과 견줄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 다음은 그레고리 뎀과의 일문일답의 인터뷰 진행을 정리한 내용이다.

홈페이지에 Crown Wine Cellar 사업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건물의 구조와 지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건물의 구조면으로 봤을 때 기존의 탄약고였던 이 장소를 와인 저장소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37년도에 콘크리트로 건설된 이 장소의 모든 벽은 1m의 두께로 되어있고 천장은 2.5m의 두께로 되어있지만, 1m 가량의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또 1m의 콘크리트 벽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약 15m의 흙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있는 이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20m 가량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한 공간과 다른 공간 사이에는 12m의 복도가 존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러한 공간이 존재했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복도에는 2개의 문이 존재하는데, 이 문이 알고보니까 절연처리가 되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들은 동시에 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우주선에서 나오는 에어로크(airlock)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밖에 있는 뜨거운 공기도 입구에서 다 열 처리가 되어 내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물론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장소가 원래는 영국군사기지라고 들었는데, 과거에 이 장소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1937년도에 아직은 홍콩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동아시아 지역은 아직 잠잠했었지만, 일본이 중국 본토와 만주를 점령한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 동쪽으로 진입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영국군들은 이후에 생길 문제를 대비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곧 '중앙 탄약고' 라고 불렸으며 암호로는 '리틀 홍콩(Little HongKong)'이라고 불렸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목적이든 사업적인 목적이든, '홍콩'이었기에 가능했던 점이 있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는 제가 전에 완전히 다른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영사관에서 총영사직을 수행했었습니다. 당시 수 많은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2000년 6월에 홍콩정부가 주최하는 '홍콩이 아시아의 무역중심지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약 15%~17%의 유럽에 있는 훌륭한 와인들은 홍콩 사람들에 의해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홍콩 사람들은 홍콩에서 와인을 보관할 수 없기에 무조건 유럽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40년간의 전문적인 와인 지식, 가장 높은 1인당 와인 수집률, 최고의 물류, 훌륭한 소비자 센터, 2008년도의 주류 무관세, 적극적인 정부지원, 중국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과 자유로운 환율조정, 이 모든 조건이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와인을 홍콩에서 보관하는데 적합했습니다.

많은 나라중에 홍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홍콩사람이며 여기는 제 고향입니다.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홍콩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녀들도 여기서 태어났으며 자랐습니다. 모두 국내 학교를 다니며 우리들의 모국어로서 광둥어를 배웁니다. 하지만 물론 이전에 말씀드렸다 싶이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았더라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을것입니다.

단체 방문의 경우 제공해주는 관람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도 있고 2007년도에 아시아 태평양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상대로 가장 마지막으로 항복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역사에 관심을 갖고 편안하게 와인을 한잔 기울이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 중에 상공회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행사가 있습니까?



물론 환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항상 행사가 있습니다. 버건디로 유명한 도멘 푸리에가 왔었습니다. 유명한 호주의 와인 유통업사가 다녀갔습니다. 재즈음악회도 열고, 미술 전시회도 있으며 매년 50개 이상의 자선 단체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몰랐지만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씨도 여기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도 왔었고, 전 대통령도 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자선단체나 와인 관련된 행사를 즐기기 위해 방문을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행사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www.crownwinecellars.com)

인터뷰 진행 및 번역: 우현진, Concrete Wall Creation Ltd